

# 울림과 잠김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발행인: 오승수 시몬 주임신부 | 편집: 소공동체지 편집팀  
<https://standrewkimdetroit.org/detroit/bbs/monthly-meeting/>

연중 제16주일 ‘조부모와 노인의 날’ (2023년 7월 23일)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마태오 13,30)



사라센 사람들의 추수 | 그림 장 프랑수아 밀레 (출처: 말씀과 성화, 2011.7.26)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마태오 13,40)



## 1. 시작 성가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가톨릭 성가 456장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연중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456

보통 빠르기로



둘 이 나 셋 이 모 인 곳 주 님 계 시



네 1. 찬 미 와 흠 송 드 리 려  
 2. 사 랑 과 희 망 나 누 르 려  
 3. 환 희 의 노 래 부 르 려



모 였 나 이 다 주 여 어 서 오 시 어  
 모 였 나 이 다  
 모 였 나 이 다



축 복 하 소 서 주 의 뜻 을  
 주 주 의 사 기 랑 뵈



이 땅 위 에 채 우 리 이 다  
 서 로 서 로 나 누 오 리 다  
 온 세 상 에 전 하 오 리 다

## 2. 인사 나누기 및 출석 확인

- 참석한 반원들과 초대 손님이 있으면 인사를 나누고 반원들의 근황과 소식을 나눕니다.

## 3. 기도 지향 나누기

- 오늘 반 모임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에 필요한 기도 지향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 4.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로마 10,8)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주교회의 성경위원회)

## 5. 하느님 말씀

- 어느 분이 (혹은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다음의 성경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하느님의 주권은 정의의 원천

(지혜서 12,13.16-19)

13 만물을 돌보시는 당신 말고는 하느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께서는 불의하게 심판하지 않으셨음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6 당신의 힘이 정의의 원천입니다. 당신께서는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을 지니고 계시므로 만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17 정녕 당신의 완전한 권능이 불신을 받을 때에만 당신께서는 힘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아는 이들에게는 오만한 자세를 질책하십니다. 18 당신께서는 힘의 주인이시므로 너그럽게 심판하시고 저희를 아주 관대하게 통솔하십니다. 당신께서는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때에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19 당신께서는 이렇게 하시어 의인은 인자해야 함을 당신 백성에게 가르치시고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희망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안겨 주셨습니다.

### 고난과 희망과 영광

(로마서 8,26-27)

형제 여러분, 26 성령께서는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27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 가라지의 비유

(마태 13, 24-30)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24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비길 수 있다. 25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26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27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28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 낼까요?’ 하고 묻자, 29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 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30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 각자 마음에 와닿는 말씀 (최소 단어 하나 / 최대 문장 하나) 뽑는 시간을 1분간 가지겠습니다.
- 10분 동안 각자 선정한 말씀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 6. 말씀과 생활 나누기

- 그 말씀을 왜 선택했는지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각자에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짧게라도 되도록 기도한 모든 이가 나누도록 합니다.)

### 동네방네 메아리

- 지난달 반 모임 실천 사항이었던 ‘성당 홈페이지 신부님의 강론 다시 듣기’를 실천하며 느낀 좋은 점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BL1)
- “너희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앞으로는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해 봅니다. (CT)
- 주님께서 영원한 삶을 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뒷날에 너희가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라는 말씀을 믿고 따르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CT)
-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의 성체를 모시는 우리가 변화하여,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기로 다짐해 봅니다. (CT)
- 거룩한 성체 성사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합니다. (CT)
- 여럿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 한해 한해 더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NV2)
- 형제나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참고 배려하며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느낍니다. (NV2)
-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나의 힘들고 불편한 마음도 주님께서 다 헤아려 주신다는 것을 오랜 해외 생활을 통해 느낍니다. 오늘 반 모임에도 주님께서 함께 계심에 감사합니다. (NV2)
-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느낄 때마다 주님께 감사와 찬미의 기도를 드립니다! (NV2)
- 충실함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삶,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청해봅니다. (RC3)
-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상처를 주지 않도록 교만하지 말라는 뜻으로 “너희를 낮추시고”라는 말씀이 받아들여졌습니다. (RC3)
- 아이들과 바쁜 방학 생활을 슬기롭고 조화롭게 보내봅시다. (TR5)

## 7. 건의 및 기타 토의

- 우리 반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 토의할 사항에 대해 나눕니다.
- 참석 반원의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득표를 받은 사항을 본당에 건의합니다.

## 8. 공지 사항

- 본당 공지 사항과 구역, 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9.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와 날짜를 정합니다.

## 10. 마침 기도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모두 다 함께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반 모임에 참석한 모든 가정을 위하여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 가정을 위한 기도문

-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 ◎ 아멘.

## 11. 마침 성가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가톨릭 생활성가 셀라책 319번 ‘주만 바라보아라’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319

주만 바라보아라



A F#m D

하느 님의 사-랑을 사모하는자 하느 님의 평-안을  
 님께 찬-양과 경배하는자 하느 님의 선하심을

4 E D E C#m F#m

바라보는자 너의 모든것 창조하신 우리주님이 너를  
 닦아가는자 너의 모든것 창조하신 우리주님이 너를

7 1. Bm E 2. Bm E A E7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느 자녀 삼으셨네 하느

11 A F#m D B7 E E7

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때나 바라보시고 하느

15 A F#m D B7/D# E

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

19 A F#m Bm D E

움에 밝은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23 A AM7 F#m Bm E 1. A E7

어느곳에있든지 주를향하고 주만 바라보아라 하느

27 2. A D E D A

라 주만 바라보아라 -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본당 성서 공부 질문과 응답

주임신부님께서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 미사 중에 해주시는 성서 공부를 본당 홈페이지에서 녹음 파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서에 대한 궁금한 점은 반장님이나 “질문 링크 (QR Code)”를 통해서 오승수 시몬 신부님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무교절이나 아니면 성서의 다른 부분에서도 가끔 만나게 되는 "누룩 없는 빵"에서 "누룩"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문화인 것인지 아니면 누룩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 그것이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무교절은 기본적으로 농경민의 축제였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던 사람들의 축제였습니다. 히브리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동화 되어 살게 되면서 그 무교절의 풍습이 과월절 안으로 들어와서 섞이게 된 것입니다. 무교절은 수확 즈음에 하는 추석과 같은 축제입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음으로써 이전에 쓰던 오래된 것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누룩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과학적으로도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누룩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면 누룩의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즈음에 새누룩으로 갈아주어서 빵을 부풀게 하는 힘을 다시 얻는 겁니다. 이것이 과월절로 들어오면서 이집트 탈출 당시 누룩에 빵을 불릴 시간도 없이 나와야 했던 상황을 상징하는 것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월절, 해방절이 되면 부풀지 않은 납작한 빵을 먹게 됩니다.

**Q** 탈출기에 25장부터 나오는 성소, 제단 등에 대한 묘사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솔직히 드는 생각은 ‘왜 내가 이걸 읽고 있지’라는 생각과 ‘이 내용이 이렇게 자세히 묘사된 이유가 뭘까’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화려하게 만들어야 하는 내용에서 그것들을 준비하는 백성들은 정말 힘들었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을 쥐어짜지 않고서는 감당이 안 될만한 준비를 해야만 했고 이렇게 자세히 성서에 묘사되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A** 일단 종교 안에서 화려한 부분들은 어디에서나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종교의 화려함은 인간으로 하여금 같은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종교가 이렇게 화려하고 사치스러워도 되는가? 사실 로마의 성베드로 성당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그 웅장함과 화려함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또 어떤 이들은 종교를 앞세워서 이렇게 값비싸 보이는 성전이 존재한다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성전이 화려한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 하나만큼은 그 종교의 중심이기에 화려하게 만들어 보자는 자발심이 모여서 만든 성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탈출기에서 그렇게 이동 성전을 만들 때 백성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임금이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 궁전을 짓는 모습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언제나 이러한 사치스러움을 경계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화려함은 그 장소의 거룩함을 높이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의 생각마다 달리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쪽의 답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동 성전을 자세하게 묘사한 이유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그 내용은 아무 쓸모가 없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당시에 그 기록은 아주 중요한 그들의 종교유산, 문화유산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하여서 후대 자손들이 그 기록을 보고 장막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 어려움 없이 다시 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굳이 찾는다면 하느님의 자리를 마련함에 있어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의 자세 정도를 이야기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읽기에 불편하시면 굳이 정독하시려고 하지 말고 대강 읽으시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성서의 모든 부분이 나에게 모두 소중한 수는 없습니다.

**Q** 탈출기 32장 14절 "그러자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셨다." 에서 모세의 간청을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모세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주님의 생각이 왜 바뀌셨을까? 모세도 주님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부족한 인간일뿐인데, 주님의 뜻보다 모세의 말이 맞아서 들어주신 걸가요? 이미 주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결정하신 걸 사람의 간청으로 바꾸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A** 구약의 하느님은 기본적으로 정의의 하느님입니다. 하지만 그 정의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찾고 구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구약의 모습입니다. 하느님이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은 하느님은 정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자비하시기도 함을 보여주려는 저자의 의도입니다. 인간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그 간청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간청을 전적으로 무시하시고 하느님의 원칙대로만 하느님이 인간을 다스리신다면 인간은 그런 하느님에게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겁니다. 하느님은 단지 모세뿐만 아니라 인간이 간구를 드리면 그 청을 일정 부분 들어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이기에 우리는 하느님에게 기도해야 한다는 신학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의 말이 맞아서 그것을 들어주신다기보다는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들이 가엾어서 그 청을 들어주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러한 간청은 모세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이에게 가능한 일이 될 겁니다.





## 제1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프란치스코 교황 담화 “하느님께서 외로움을 위로할 천사를 보내십니다.”

Alessandro Di Bussolo / 번역 이재협 신부

“모든 할아버지와 할머니, 모든 남녀 노인들, 특히 우리 가운데 가장 외로운 노인들이 천사의 방문을 받길 바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식이 없어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성 요아킴에게 천사가 방문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노인들에게도 천사가 방문하길 바란다는 소망을 이 같이 전했습니다.

### 요아킴의 꿈

예수님의 할아버지이면서 안나의 남편인 요아킴에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듯, 노인들에게도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어 위로하시길 교황은 기도했습니다. 교황은 요아킴을 찾은 천사가 “주님께서 네 끈질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했다고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천사들은 어떤 때는 우리 손주의 얼굴로, 어떤 때는 가족의 얼굴이나 오랜 친구의 얼굴로, 혹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알고 지내는 이웃의 얼굴로 찾아옵니다.”

### 코로나19 대유행, 노인들의 힘겨운 시련

교황은 모든 조부모와 노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온 교회가 여러분 곁에, 그리고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걱정하고 아끼며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교황은 코로나19 대유행이 모든 사람들의 생활에 타격을 입혔지만, 특히 노인들에게 더욱 가혹한 시련을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병에 걸렸고, 세상을 떠난 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자신의 배우자, 혹은 사랑하는 이의 임종을 지켜야 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오랫동안 고립되었으며 외로움을 겪도록 내몰렸습니다.”

###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위한 기도

교황은 지금이 노인들을 방문하고 포용할 천사들이 필요한 때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지역에서는 이마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한탄했습니다. 교황은 지난 2021년 1월 31일 삼중기도에서 첫 번째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제정 소식을 알리며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자.”고 초대했습니다.

### 은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교황은 언제나 인간에 대한 충실성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기억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복음서와 시편에서 들을 수 있듯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예언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하루 중 매 시간마다 당신의 포도밭을 위한 일꾼을 부르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교황은 자신이 정년에 이르렀을 때, 곧 더 이상 새로운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을 때 로마의 주교(교황)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영원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은퇴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요.”

### 젊은이들에게 신앙을 전달할 소명

교황은 천사들의 위로에 관한 이야기에 이어 다른 주제로 담화를 이어갔습니다. 담화의 두 번째 주제는 조부모와 노인들의 소명, 곧 “뿌리를 수호하고, 젊은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며, 아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교황은 복음 선포엔 유효기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음 선포의 사명을 수행하고 자녀들에게 전통을 전달하는 데 있어 은퇴할 나이란 없습니다.”

## 성령의 힘은 모든 우려와 노고를 이겨냅니다

교황은 자신의 에너지가 모두 소진됐다고 생각하거나 습관이 하나의 규칙이 됐을 때, 무엇을 다른 방법으로 새롭게 시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런 의구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족에 대한 큰 걱정이나 무거운 바위처럼 극심한 외로움이 몰려와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헌신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도 자연스런 우려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이러한 생각을 하는 노인들에게 “불고 싶은 데로 부는 성령의 활동에 마음을 열라”고 당부했습니다. “성령께서는 (...) 무엇이든 할 수 있으십니다.”

## 내일을 건설하기 위해 필수적인 노인의 역할

교황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위기 속에서 작성한 회칙 「Fratelli tutti」의 언급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이) 우리가 아무것도 배울 수 없던 또 하나의 되풀이된 심각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 이처럼 큰 슬픔을 헛되지 않게 하고, 우리가 새로운 생활 방식을 향하여 도약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35항). 이어 교황은 직접적으로 조부모와 노인을 향해 형제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로 내일의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 세 가지 기둥: 꿈, 기억, 기도

노인들이 지닌 장점과 연륜으로 새로운 미래를 건설해야 합니다. 미래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세 가지 기둥은 “꿈, 기억, 기도”입니다. 요엘 예언자는 “노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리라” (요엘 3,1)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교황은 “젊은이들이 아니라면 누가 노인들의 꿈을 이룰 수 있겠느냐”고 물으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정의, 평화, 연대에 대한 꿈을 간직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체험을 증언하는 여러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전쟁과 이주의 기억들

세 가지 기둥 가운데 두 번째는 ‘기억’입니다. 전쟁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통해 젊은이들은 평화의 가치를 배웁니다. 고국을 떠나야 했던 노인들의 기억은 “더 인간적이고 환대하는 세상을 건설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교황은 강조했습니다. “기억 없이 우리는 미래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기초 없이 우리가 절대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삶의 기초는 기억입니다.”

## 세상을 지키는 기도

‘기도’와 관련해 교황은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일하는 거룩한 어르신”인 베네딕토 16세 전임교황이 지난 2012년 언급한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노인들의 기도는 세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의 부산한 활동보다 세상을 더 효과적으로 도우면서 말입니다.”

## 하느님의 말씀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교황은 “복자 샤를 드 푸코가 알제리의 사막에서 극심한 고독 속에 은수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모든 가난한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모범을 보여줬다”며, 또한 “진정으로 모든 이의 형제자매가 되는 것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오늘 들었던 이 위로의 말씀을 모든 이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반복하는 법을 배우길 바랍니다.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출처: 바티칸 뉴스, 2021. 6. 22)

(제2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교황 담화 링크 [https://catholicjp.or.kr/lib\\_doc/25331](https://catholicjp.or.kr/lib_doc/25331))